



마
음
이
그
랬
어

글 · 그림 허브티

작가의탄생



마음이 그랬어

글 · 그림 허브티



작가의탄생

작가의 말

오전에는 주부로 또한 다양한 배움을 하는 학습자로 살다가
오후에는 직장인으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살아갑니다.

봄의 절정 5월.

난생처음 그림책 창작에 도전하여

작가처럼 고심하며 소중한 날들을 지냈습니다.

어느새 가을.

첫 열매를 맺은 흥분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듯합니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래가 있다면

나의 수요일엔 ‘그림책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설렘으로 저장되어있습니다.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


그림책이 좋아서


지은이 허브티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발행

펴낸곳 양주희망도서관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78-4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양주희망도서관

제 작 (주) 작가의탄생

[비매품]

*본 도서는 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에 선정되어 발간하였습니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사업 안내 및 홍보 이외에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그려져

글·그림 허브티



50대 나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2022년을 맞이했어요.

날마다 헛되지 않게 더욱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조금해지고 힘겨웠지요.

그러다가 마음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너그러이 나를 들여다보았어요.



나는 무얼 잘 할까?

소소하지만 매일 꼬박꼬박해야 하는 일을 잘하는구나.

4월 근로사 출근부

일	출근	퇴근	일	출근	퇴근
1	14:50	19:40	6		
2			7		
3			8		
4	14:50	19:30	9		
5	14:55	19:30	10		
6	14:48	19:30	11		
7	14:52	19:30	12		
8	14:46	19:30	13		
9			14		
10			15		
11	14:50	19:30	16		
12	14:49	19:30	17		
13			18		
14			19		
15			20		

2022년 8월 코로나19 위생 및 방역 관리 점검표

점검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 출하원 시 모든 원아 마스크 착용 확인										
2. 출하원 시 모든 원아 발열 체크										
3. 화장실 비누 비치										
4. 소독제 소독										

다남반 시설관리 부서간 안전점검표

2022년 6월

점검 내용	1	2	3	4	5	6	7	8	9
1. 위생관리 철저 여부									
2. 안전사고 예방 조치									
3. 화재 예방 조치									
4. 시설물 점검									



일정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잘 적고 가계부 기록도 잘하는구나.



토요일이면 빼놓지 않고 화분에 물도 잘 주지.
작은 수고를 한 것뿐인데 초록 잎들이 고맙다고 인사해주니 기뻐.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그림일기도 날마다 써.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서툴지만, 관찰력도 늘어가고 보람도 있어.





약속 시간 지키려고 늘 노력해.
시간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나는 무엇 좋아할까?

지금까지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았어.
내가 진정 좋아하는 건 나의 감성과 정성을 담아
소박한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야.



수수하면서 은은한 향긋함에 매료되는 허브티 마시는 걸 좋아해.
누군가와 담소하며 마셔도 좋고,
나에게 집중하며 혼자 마시는 것도 좋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동화책을 함께 보며 구연하는 게 재미있고 좋아.



그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꺼내 볼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조금 더 친근한 리코더부터 시작해볼까?



목공예도 해보고 싶어.

도마랑 컵 받침 같은 소품들을 내 손으로 만들어 써보고 싶어.



여태껏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 손길을 보태고 싶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고
생활 소통에 작은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



나 이 들 에 대 하 여 . . .

나이 든다고 해서 서글픈 것만은 아니에요.

치열했던 젊은 날엔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이를 알아가니까요.

의욕에 미치지 않는 나의 능력과 상황에도 의연해질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느긋함도 생겨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감사해할 줄도 알지요.

나를 발견하게 해 준 마음아.

나이 들어가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 마음아.

어느 나이로 살든지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걸 가르쳐 준 마음아.

참 고마워!



